

Autumn 2010

또 하나의 Vol. 52 나 우리

www.plankorea.or.kr



행복은 주는 사람!!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추수하는 시기인데, 후원자님 모두에게 아름다운 결실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난히 자연 재해로 고통 받는 사람이 많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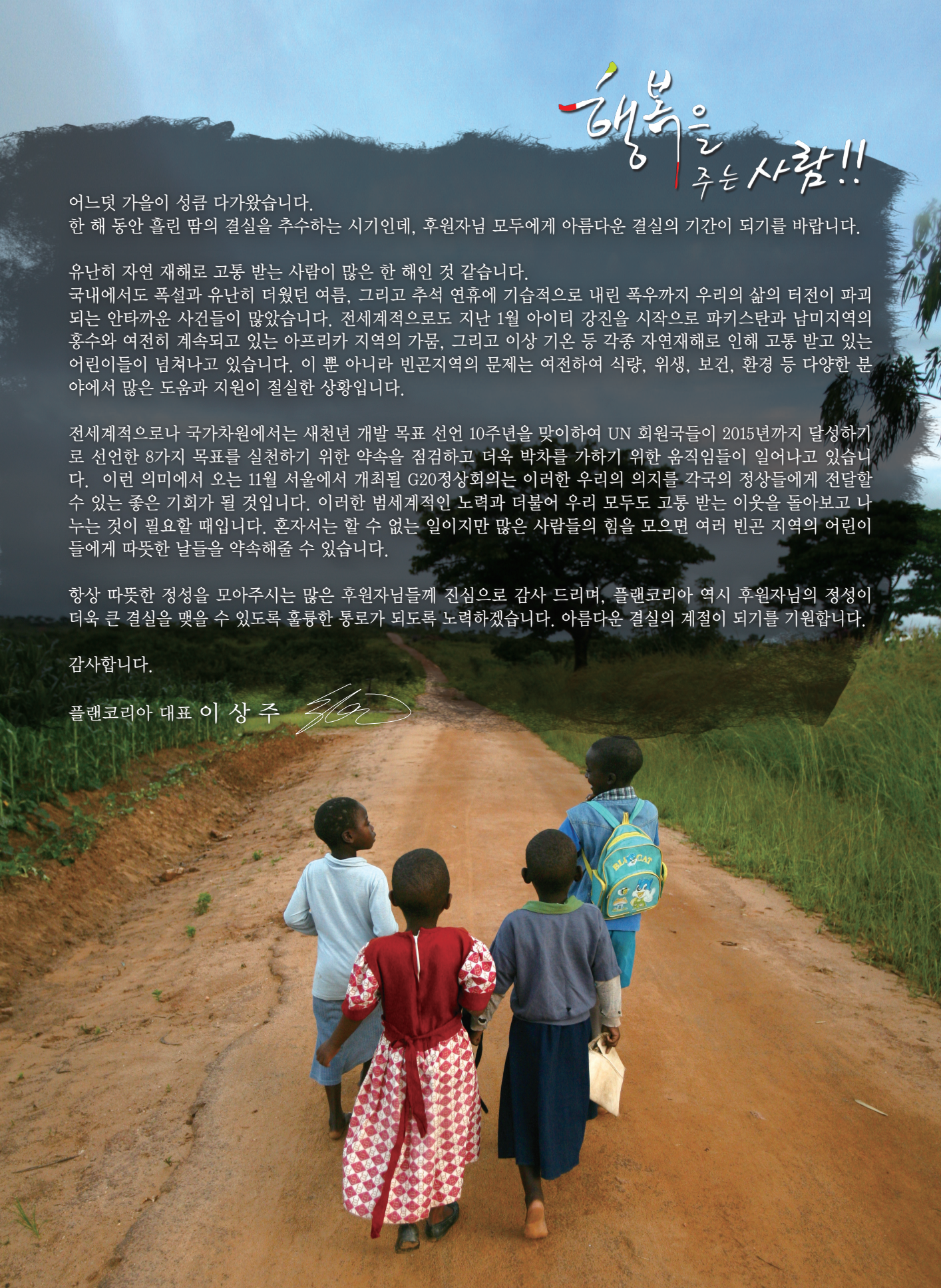
국내에서도 폭설과 유난히 더웠던 여름, 그리고 추석 연휴에 기습적으로 내린 폭우까지 우리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지난 1월 아이티 강진을 시작으로 파키스탄과 남미지역의 홍수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가뭄, 그리고 이상 기온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빈곤지역의 문제는 여전하여 식량, 위생,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도움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세계적으로나 국가차원에서는 새천년 개발 목표 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UN 회원국들이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선언한 8가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약속을 점검하고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정상회의는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각국의 정상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범세계적인 노력과 더불어 우리 모두도 고통 받는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으면 여러 빈곤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날들을 약속해줄 수 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정성을 모아주시는 많은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플랜코리아 역시 후원자님의 정성이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훌륭한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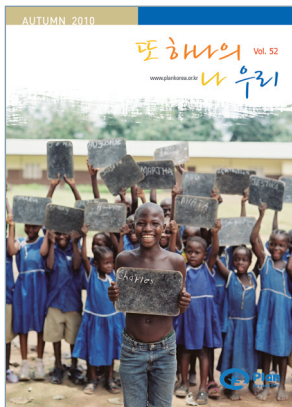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플랜코리아 대표 이 상 주



또 하나의 나 우리 Vol. 52

www.plankorea.or.kr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73년 전통의 국제아동후원단체로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기구입니다. 세계 최대 개발원조단체인 플랜은 비종교, 비정치, 비정부의 국제기구로서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1개국을 후원국으로 하여 전세계 48개국 150만 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02 행복을 주는 사람 • 플랜코리아 대표 이상주
- 04 지구촌을 간다 I • 썬앳푸드 정진수 주임
- 06 지구촌을 간다 II • 삼성전자 구름 사원
- 08 지구촌을 간다 III • 후원자 박한샘
- 10 플랜캠페인 • Because I am a Girl
- 12 우리는 플랜가족 • 후원자 김내환
- 14 나눔의 행복 • 서영 엔지니어링
- 16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 • 파키스탄
- 17 우리들의 특별했던 8월
- 18 알려드립니다

플랜 NEWS

- 19 플랜코리아 소식
- 20 플랜 지구촌 소식
- 21 플랜과 함께하는 분들
 - 일시 후원금, 긴급재해 후원금, 모금함, THE 좋은선물, 특별 후원금, 신규 어린이 결연 후원자



썬앳푸드, 네팔과 밥 정들다.

“일주일 동안 샤워는커녕 머리도 못 감습니다.”
“맨땅에 쳐놓은 텐트에서 잠자야 합니다.”

썬앳푸드 네팔 봉사단을 모집할 때
사내를 술렁이게 했던 소문들이다. 하지만 이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원들이 지원하여 지난 2월 썬앳푸드
네팔 원정 봉사가 결정되었고, 7개월 만에 드디어 첫발을 내디뎠다.

이역만리에서 동심과 마주하다.

우리가 도착한 반케는 수도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이다. 관
광지도, 성지도 아니기에 이곳에서 이방인은 매우 낯선 존
재이다. 썬앳푸드 이름으로 세워진 소박한 크기의 영유아
개발센터 앞에서 주민들은 열렬한 환영을 해주었다. 마음
을 울리는 북소리가 들리고 정성이 담긴 꽃 목걸이를 걸고
이마에 붉은색의 티카(힌두교에서 말하는 제3의 눈)를 찍은
후,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어색한 침묵의 시간도 잠
시, 누군가의 시작으로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무지개 빛
깔의 풍선을 불어 던지고 받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들의 웃
음소리가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오래 전 묻어둔 동심이 다
시금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동심을 깨워 준 아이들
의 장난에 나도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크게 웃었다.

나마스떼,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우타하트의 습기 가득한 여름은 서울과 흡사하다. 숨막히
는 더위를 잊어보고자 달리는 차의 창문을 열고 머리 속으
로 오늘 일정을 정리 해보는 사이 어느덧 버스는 목적지에
도착하고, 바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인파를
발견한 순간 상상치도 못했던 박수와 환영에 우리 일행은
그만 얼어버렸다. “Welcome SUN at FOOD” 라고 쓴 피켓을
든 아이들 사이를 걸어가자 학교 앞에 “환영합니다” 라고
한글로 쓴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저 한 문장을 쓰기 위해
들었을 정성을 생각 하니 감동의 물결이 밀려 왔다. 우리는
학교 마당 한가운데에 설치된 단상 위로 올라갔고, 우리를
보기 위해 나온 동네 주민들과 아이들은 운동장과 건물 안





과 박을 빼곡하게 채웠다. ‘이럴 줄 알았으면 소녀시대 춤이라도 배워서 보여드릴걸...’ 하는 아쉬움이 드는 순간, 빨간 사리를 차려 입은 다섯 명의 소녀들이 수줍게 걸어 나와 네팔 전통춤으로 환영의 무대를 선사했다.

학교 담장 쌓기

라우타하트는 국경지역이라 인신매매 사건이 빈번히 일어난다. 커다란 트럭이 학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싣고 도망가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 담장이 필요했고 우리는 기꺼이 그 담장을 쌓아주기로 했다. 시멘트를 개고, 벽돌을 옮기고 쌓았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많은 아이들이 우리 주변을 빙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주변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아이들로 시끌벅적하다. 이들의 관심은 모두 우리를 환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느껴져 자랑스러운 기분마저 들었다. 이곳을 방문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만큼 이들에게 우리의 방문이 즐거운 추억의 한 장으로 기억되길 바라면서 말이다.

‘밥’ 정’ 들다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은 바로 음식 교류이다. 썬앳푸드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보니 이런 기회를 통해 요리 봉사를 꼭 하고 싶었다. 쉽게 할 수 있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회의만도 수 차례.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Back to the Basic”이라는 우리 썬앳푸드의 서비스 정신을 상기하면서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서울에서부터 아이스 박스에 넣어 가져온 소스와 면 100인분을 주방으로 옮겼다. 물을 끓이기 위해 동네 아저씨들이 벽돌을 쌓아 장작을 지퍼주셨다. 어렵게 생수를 구해 면을 삶는 동안 매개한 연기로 정신 없이 눈물콧물이 쏟아졌지만 옆에서 현지식을 준비하는 아낙들과 함께 요리를 하는 특별한 경험은 우리가 기대했던 음식문화교류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에 충분했다. 접시 하나에 우리가 준비한 파스타 조금, 그들이 준비한 볶음밥과 감자, 생 선을 조금씩 올리고 나니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되었다. 아이나 어른, 네팔인이거나 한국인 할 것 없이 방에 모여 서로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함께 밥을 먹으면



정든다고 하는데, 이들과 이미 한마음이 된 것만 같은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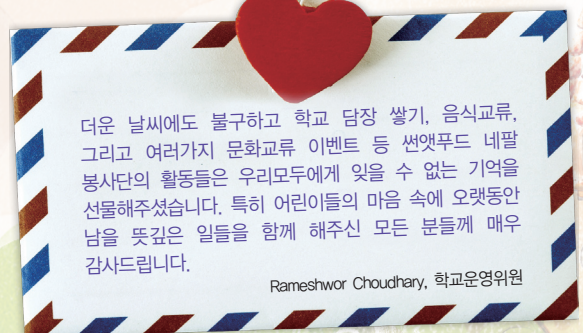
보고, 듣고, 배우고

다음날 찾아간 또 다른 학교에서 우리는 준비해간 학용품과 티셔츠, 그리고 현지에서 구입한 물을 전달하기로 했다. 플렌코리아와 플렌네팔 스태프들이 고생해주셨다.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에 앞서 커플 댄스를 선보이는 축하 공연이 있었는데, 옆에서 보고 흔들흔들 따라 추던 우리 일행은 급기야 무대 위로 올라가 본격적으로 춤을 배워 보았다. 네팔의 춤을 함께 추고, 네팔의 음악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배워보았던 것. 네팔의 문화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순간이었다.

맛있는 삶을 위하여...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네팔에 학교와 영유아개발센터도 지어 주고,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경제적 후원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준 것에 비교 할 수 없는 더 큰 나눔의 삶을 배워왔다. 환한 인사와 미소를 나누고, 음식과 문화를 교류한 우리의 나눔은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모두의 마음 속에 담아졌다. 앞으로도 썬앳푸드는 우리의 작은 후원이 퍼져 누군가의 삶에도 기쁨을 줄 수 있기 위해 계속해서 네팔 어린이를 후원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맛있는 삶을 위하여! 🍷

〈글,사진= 썬앳푸드 PR팀 정진수 주임〉



세네갈 방문기

아프리카와의 따뜻했던 첫 만남

“아! 이제 도착이구나.”

서울을 떠난 지 스무 시간 만에 비행기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미지의 대륙에 대한 호기심과 아무것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밀려오는 두려움으로 심장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긴 비행에도 지치지 않고 빛나는 눈빛을 밝히는 동료들을 보자 걱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이곳의 아이들과 함께할 상상을 하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여름 삼성전자 임직원 25명과 강북삼성병원 의료봉사단 11명은 함께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1995년 그룹에서 사회봉사단을 창단하고 지역사회 이웃들과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래 15년 만에 처음 실시하는 아프리카 해외봉사활동이었다. 우리 임직원은 ‘전세계 사람으로부터 사랑 받고 존경 받는 기업’이라는 사회공헌 부분의 비전과 ‘글로벌 지역사회 지원활동’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가지고 세네갈로 향했다.

문득 떠오른 한비야 씨의 책에서 읽었던 ‘굶주림, 에이즈라는 괴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세상이 외면하는 곳에 가서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 와라.’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한다.’라는 구절이 마치 내게 하는 말처럼 다가왔다.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지 아니라 무관심인 것 같아 남은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세상만이 전부인냥 알면서 살기 보다는 좀 더 많은 곳에 관심을 갖고 더 넓은 세상을 몸소 느끼고 싶었다. 권력다툼, 불공평한 식량분배, 전쟁 등으로 기본적인 음식조차 제대

로 공급받지 못하는 가장 소외된 계층인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직접 도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봉사모집 공고가 나자마자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했고 임직원을 대표해 세네갈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수도 다카르에서 버스를 타고 두 시간이 걸려 도착한 피에스에서 티없이 맑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먼저 손을 흔들어주었던, 순수함이 가득한 미소를 가진 그곳의 아이들과 드디어 마주하게 되었다. 앞으로 며칠간 이들과 함께 우리가 준비해 간 것들을 펼쳐나갈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가슴이 떨렸다. 이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소중한 일들을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몸 안에서 솟구치는 것 같았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은곤곰 마을의 초등학교는 식수원이 학교에서 4km나 떨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제대로 된 화장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열



악한 환경에, 한낮에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나무그늘조차 없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화장실 및 정화조 그리고 식수대를 세워주는 작업과 함께 축구공과 축구볼대 만들기, 한국전통놀이인 제기 만들기, 가족사진 촬영 및 액자 만들기, 태권도 시범 및 실습 그리고 화장실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이들에게 시원한 나무그늘과 신선한 과일을 제공해 줄 40여 그루의 망고나무를 심어주기로 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을의 학교에 컴퓨터교육장 설치를 지원하고 교사와 지역 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는 사이 삼성병원 의료봉사단은 세 개 마을에서 하루에만 500명이 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등 기본건강검진과 이에 따른 치료와 처방을 하며 실 틈 없는 봉사 활동을 펼쳤다.

함께 힘을 모아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과 역할을 실천하고, 시간이 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을 하루 종일 기쁜 눈으로 지켜 보고 있던 아이들과 노래와 율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다음날 봉사할 내용을 준비하느라 매일 새벽 두 세시가 넘어야 잠을 청했다. 커다란 변화를 위해서는 더욱 장기적인 목표와 실천이 필요하겠지만, 매일 조금씩 변화가는 그곳의 모습과 우리가 이루어 낸 일들, 그리고 하나 둘씩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짚어보면 그 모든 것이 결코 작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

다. 적어도 그들 혼자서 힘겹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손잡고 함께 나아가갈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존재 자체로 힘이 되지 않을까?

내부의 경제성장과 국제협력에서의 원조를 통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그들에게 다시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상처받지나 않을까 걱정하며 한 발짝 물러나 있던 나에게 먼저 다가와 눈웃음 지어주고 손을 내밀어 준 따뜻함과 용기를 가르쳐준 세네갈에서 한층 더 단단해진 심장을 안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

개인적으로 인류사회의 공헌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나에게 그 뿌리를 직접 살갓으로 느끼고 올 수 있어서 이제 남은 인생에서 어떻게 나누며 함께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기회가 되었다. 세네갈을 떠나오던 길에도 한 방울 흐르지 않던 눈물이 영종대교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왜 왈각 흘렀던 건지... ‘더 잘하고 올걸’ 하는 아쉬움의 깊이도 시차와 함께 짐짓 망설였다가 다가온 듯 했다. 손에 잡힐 듯 멀리 뻗은 파란하늘의 하얀 구름이 세네갈의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나만의 착각은 아닐 것이다. 높다란 건물에 가로막혀 넓은 초원과 바오밥 나무가 사라진 풍경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 아이들과 함께 했던 기억들은 내 허전함을 달래주며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한다. “희망의 전도사가 되고 싶어 떠났는데, 희망을 안고 돌아왔다.”는 동료의 소감이 가슴 깊이 남은 시간이었다.

검은 대륙에 붙었던 파란 사랑.

우리와 만난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Salaam Maleekum! 🙏

〈글=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구 림 사원〉
〈사진=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인도 후원아동 방문기

지난 4년 간 플랜코리아를 통해 후원해 온 친구를 만나러 드디어 인도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다. 우리 일행은 인천에서 출발해 몇 시간을 공항에서 대기하고 비행기를 두 번이나 갈아탄 끝에 같은 날 밤 인도의 하이데라바드에 도착했다. 그리고 내 친구 산가메쉬의 집은 이곳에서 차로 한 시간을 더 이동해야 하는 곳에 있었다.

현재 인도는 우기시즌이다. 일년 중 가장 살기 좋은 3~4달의 우기를 제외하고는 땅이 메말라 온통 황토색으로 변하는 건기가 이어진다고 한다. 이렇게 척박한 땅 인도, 그 중에서도 가장 더운 지방인 이곳에 나의 인도 친구 산가메쉬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

도착한 다음날 플랜인도의 직원과 함께 산가메쉬의 집을 찾았다. 집 앞에 차를 멈추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산가메쉬가 달려 나와 우리 일행을 반겨주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하얀 이가 드러나도록 활짝 웃으며 나를 보자마자 꼭 끌어안고 인사를 했다. 우리는 고작 4년 동안 직접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서로 편지왕래만 했을 뿐인데 오래된 친구처럼 무척이나 친근한 느낌이었다. 손님접대로 뻘뻘하지 않고 내놓는다는 간식을 가져온 산가메쉬의 누나는 아마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 아주 예쁘게 단장을 한 것 같아 보였다. 이들에게 우리의 방문이 행여나 부담이 된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했지만, 움켜쥔 손을 연신 쓰다듬는 그 손길은 내게 잘 왔다고, 만나서 반갑다고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산가메쉬의 집 안을 둘러보면서 한눈에 들어온 것은 내가

보내줬던 사진이 끼워져 있는 액자였다. 시멘트 바닥에 별다른 가구도 없는 소박한 공간에는 그들이 믿는 신들이 소중하게 모셔져 있었고 그 한 칸에 내 사진이 함께 놓여져 있던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의 생활과 비교하자면 자칫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산가메쉬의 집은 인도에서는 평범한 서민들의 모습이라고 했다. 그리고 보니 함께 있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집 마당 가운데 심어져 있는 커다란 나무가 태양을 가리고 그늘을 만들어 주듯이, 소박하지만 정이 있는 그들의 집 안에서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편안한 나무 그늘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있다는 강한 인상은 오히려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준비해간 학용품과 옷, 그리고 한국의 전통 기념품들을 선물했다. 산가메쉬와의 만남이 서먹하거나 불편하진 않을까 조금은 걱정했던 것과 달리 내 인도 친구는 너무도 편안히 나를 반겨주었다. 그런 그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은 마음에 내 선글라스와 모자, 가방 속에 있던 물건들을 모두 꺼내서 나눠 주었고, 산가메쉬는 우정의 표시로 내게 팔찌를 끼워주었다. 성악가가 꿈인 나와 경찰을 꿈꾸는 산가메쉬. 우리 둘은 손을 꼭 쥐고 서로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조용히 마음 속으로 기도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었다. 처음으로 찾은 먼 나라 인도는 내게 이렇게 소중한 친구와 아름다운 기억을 한꺼번에 안겨주었다.



다음 날은 플랜이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몇몇 곳을 방문했다. 조금이라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산가메쉬는 기꺼

이 우리 일정에 함께 해주었다. 나는 반에서 아주 작은 키에 속하는데, 나보다 일주일 먼저 태어난 산가메쉬는 그보다 더 작았다. 그의 까맣고 작은 손도 내 것에 비하면 여러개만 느껴졌지만, 돌아다니는 내내 손을 꼭 잡고 눈만 마주치면 뭐가 그리 좋았는지 씩 웃곤 했다.

우리가 둘러본 곳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교육시켜서 일반학교로 보내는 곳이었다. 좁은 공간에 20~30여명의 아이들이 모여 앉아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충격적이었다. 한국에서 너무도 당연한 듯 학교에 다니고 익숙하게 사용하는 건물과 시설들, 그 모든 게 이곳에서는 당연한 게 아닌 오히려 수많은 친구들의 꿈이고 희망이라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비록 나의 작은 후원으로 산가메쉬는 그들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다녔던 곳곳에서 만났던 어린이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편안해 보이지만은 않아 보였던 그곳의 모습이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른다.

4년을 기다려 우리는 이렇게 만났다. 그만큼의 시간이 더 지나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겠지. 기약할 수는 없지만 뭔지 모를 희망의 기운이 샘솟았다. 엄마는 간절히 바라는 꿈은 꼭 이루어질 거라며 옆에서 힘을 실어 주셨다. 도시 곳곳에서 보이는 제복을 입은 인도 경찰들의 모습에서 훗날 산가메쉬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2010년 우리들의 만남, 그리고 함께한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의 삶에 건강한 자극이 되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그날, 지금보다 더 활짝 웃으며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을 기약하며 돌아섰다. 

(글, 사진= 박한샘 후원자)





Because I am a Girl

완결편 성인기

여성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둘러싼 위험하고 차별적인 요소들은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 축적되어 온 고통과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청소년기까지 본지에서 3편에 걸쳐 다루어진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은, [낙태, 유기, 출생미등록], [영양실조 및 영양결핍, 집안일 및 학업중단, 할례], [학업중단, 인신매매, 조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는 아래와 같이 크게 건강, 교육과 연결되며, 결국에는 빈곤과 연결된다

1 건강:

건강 상태는 체력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 학교에 등교하고 수업을 받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데에 지장을 주는 만큼, 교육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출생 후 유기되거나 혹은 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부모로부터 혹은 병원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유아기, 학령기 때부터 겪을 수 있는 영양실조와 결핍은 신체적 발달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할례의 경우도 여아들에게 신체적 질병 및 정신적 충격을 불러올 수 있어 정상적인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조혼을 하여 성장이 온전히 되지 않은 채로 아이를 일찍 출산하는 경우도 청소년기 여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2 교육: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여아들이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은 한정되어 있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이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일에 불과하다.

여아라는 이유로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신분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교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동생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맡게 되는 것은 보통 여아이고 부모가 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여아는 학교 교육을 애초부터 받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조혼 역시 가정을 돌보고 출산한 아이를 돌보는 일로 인해 교육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3. 건강문제 + 교육문제 ➡ 빈곤

건강이 좋지 못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아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이들 대부분이 가정부나 임시 노동일과 같은 “비공식적” 인 일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공식적” 일터에서는,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도 많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태어나면서부터 겪게 되는 차별과 빈곤은 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어지게 된다.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빈곤인구 15억 명 중 70%가 여성이라는 통계는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여아와 여성들을 위해 플랜은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그동안 묵묵히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며 힘겹게 생존해오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움직임을 플랜의 여러 후원국에서 벌이고 있다.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여아와 여성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된다면, 바로 이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루어갈 거예요.”

- 마람, 팔레스타인 -

본 내용의 자료는 플랜에서 2007년, 2009년 발간한 **Because I am a Girl**에서 발췌되었습니다.

플랜코리아의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은 <http://www.plankorea.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lan Family Interview · 후원자 김 내 환

몇 마디만 나누어 봐도 대화하는 사람의 진심은 모두 전해지는 법이다. 인터뷰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한마디 한마디 성의 있게 이야기하시는 김내환 후원자님께서 후원아동을 대하는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 기운이 가시고 제법 가을 날씨 같은 바람이 불던 오후, 후원자님께서 일하고 계신 곳으로 찾아갔다.

1.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도 방문하셨죠?

플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아 인터뷰 요청까지 드리게 됐습니다. 플랜코리아와 처음 만나신 건 언제시죠?

예전부터 늘 후원을 해야겠다고 생각만하고 선뜻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주변에 물어볼 만한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러다 지금 일하는 곳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후원단체를 알아보면서 상담을 하거나 직접 방문도 하면서 선택했던 곳이 플랜코리아였습니다. 순간적인 결심이 아니었고, 나름대로는 길게 바라보고 후원을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단체를 선택하는 것부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2.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하신 곳이 바로 플랜코리아라니, 부드럼과 책임감이 동시에 드네요. 그 때부터 에티오피아 어린이와 결연을 시작하시게 된 거죠?

네, 사실 그때는 어떤 후원방식이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담당자님께서 아동결연후원에 대해 설명해주셨어요. 제가 2남3녀 중 막내라 어릴 적부터 동생 한 명만 생기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정을 줄 수 있는 동생이 없어서 사촌이나 조카들을 참 예뻐했어요.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제가 즐겁고 행복해져요. 아이들을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제게 후원아동이 생겼다는 게 뜻밖의 선물을 받을 때처럼 가슴 두근거리고 기분 좋았어요.

3. 그리고 얼마 전 중국 어린이와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셨다고요.

길게 생각해보면 언젠가 후원아동의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편지도 자주 주고받고 싶었는데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라는 곳이 제게는 조금 멀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가까운 지역의 아동을 후원하면 여러 면에서 수월하지 않을까 싶었고, 무엇보다 제가 중국어를 전공 했거든요. 후원아동과 같은 언어를 쓸 수 있다면 관계가 훨씬 가깝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성격상 한 명만 제대로 해주자는 마음으로 에티오피아 아동에서 중국 아동으로 변경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후회가 되기도 하고, 에티오피아 친구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에요. 한동안 계속 생각이 나서 후원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다시 후원을 하려고 여쭙봤더니 다행히도 후원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4. 후원금 납부 방식이 약간 특이하세요. 직접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수입 자동차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영업사원들과 어떤 면에서 조금은 다르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면 단순히 차를 많이 파는 것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판매 실적으로 받는 수당의 일정분은 무조건 기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서 받는 수당의 10%를 후원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한해는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무척 힘들었습니다. 제 원칙대로라면 후원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된 적도 있었고, 후원아동을 만나러 가겠다는 꿈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은 느낌과 후원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마저 들었어요.

다행히도 올해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기본 후원금보다 조금 더 많이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얼마 전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프로모션에서 제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판매왕 순위에도 올랐어요.^^

5. 판매왕 후원자님을 두었다니 왠지

자랑스러운데요? 후원자님 본인에게뿐 아니라 고객들께도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객분들이 자동차를 구매해 주신 덕분에 제가 후원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객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싶었어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제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분들로 인해 제 후원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셈이죠. 이런 말씀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는데 지면을 빌어서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6. 이런 특별한 방식이 때로는 부담되신 적은 없으니까요?

그렇리가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제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다는 게 적절한 표현이 될까요. 영업은 열심히 하면 수입을 높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개인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도 큰 직종이에요.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제게도 이 일이 쉽지만은 않고 가끔은 그만두고 싶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아무 의미도 없이 일만 한다면 계속해서 버티기 힘들 거예요. 제게 분명한 목적이 있고 무엇보다 저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7. 후원아동과 편지도 자주 주고 받으시나요?

에티오피아 아동에게서 종종 편지를 받았는데 바쁘다고 편지를 거의 못써줬던 게 참 미안해요. 그런데 새로 후원을 시작한 중국 아동에게 얼마 전 기다리던 첫 편지를 받았어요. 연필로 한자한자 꼭꼭 눌러 쓴 듯한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코 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왔지만 후원아동이 중국어로 쓴 편지를 제가 읽을 수 있잖아요. '이 아이가 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정성껏 편지를 썼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아동방문도 서둘러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8. 어떤 후원자의 모습을 꿈꾸시나요?

이전 에티오피아 아동도 그렇고 지금 중국 아동도 딸처럼 너무 귀여워요. 하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비록 이 친구들의 부모님과 제 나이가 비슷하지만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남자 아동과 추가 결연을 맺고 싶어요. 같은 남자로서 이런 건 꼭 해봐야 된다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등 아들처럼 옆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9.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 사회가 선행이라는 건 숨겨야 더 큰 선행이 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편견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나 후원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저처럼 영업을 하는 분들은 자기만의 원칙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고객들에게서 얻은 수익을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한다는 건 영업사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하거든요. 소식이 나오면 이전 고객들을 찾아가 그분들의 도움으로 아프리카와, 중국의 어린이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주|서영엔지니어링 사회공헌 소개

희망과 꿈의 도로를 설계하는 기업

종합토목설계, 감리기업인 서영엔지니어링은 지난 8월, 플랜코리아와 캄보디아 중학교 건립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2007년 사회봉사활동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국내 여러 곳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오던 서영엔지니어링의 나눔의 실천이 해외 빈곤 지역의 어린이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서영엔지니어링의 유덕희 대표이사는 기업의 성장 및 발전과 동시에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지난 2007년 사회봉사활동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회사의 일대일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통해서 모인 봉사활동 기금으로 시각장애의 어려움을 안고 공부를 하고 있는 맹학교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고, 흰돌회,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성남의 중탑종합사회복지관 등 국내 여러 곳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 2009년 겨울에는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협조로 안양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20kg 쌀 100포대와 라면 100상자를 임직원들이 직접 배송을 하며 따뜻한 손길을 전달하는 이웃 사랑의 실천과, 매년 한 해에 두 번씩 단체헌혈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에도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하는 나눔의 실천 그 바탕에는 아름다운 비전이 자리잡고 있다. 튼튼한 도로와 다리를 만들기 위해 그 기초가 되는 설계부터 공을 들여 작업을 해나가는 일이 서영엔지니어링의 역할인 것처럼,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도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희망의 빛을 보여주고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이제 국내를 넘어 캄보디아 씨엠립에 중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그 혜택을 약 25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또한 학교 건립 자금 마련을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저금통 모금 활동에 참여하는 꿈의 동전(The coins for dream) 행사와 전 직원이 함께하는 학교 건립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학교 이름 짓기 공모 등의 활동을 통해 사내의 훈훈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서영엔지니어링의 680여명의 임직원들에게 “세상에는 봉사란 없다” 라는 인식이 심어져 있다. 봉사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숨을 쉬듯, 그리고 밥을 먹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해가는 이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본다. 

종합토목설계, 감리기업인 (주)서영엔지니어링은 1991년 창립 이래 “최선을 다하자”라는 사훈 아래 각종 사회간접 자본 시설의 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최근 개통한 서울-춘천 민자사업 고속도로 전면책임감리, 청계천 복원공사 전면책임감리, 호남고속철도 설계, 국내 최장 사장교량이자 세계 5위 규모인 인천대교 설계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현재도 도로, 철도, 구조(교량), 수자원, 환경, 감리 등 많은 부분에서 국가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http://www.seoyoung.co.kr>



플랜, 세계를 걸어 가다

플랜의 48개 후원국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를 통해 후원국과 플랜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80년 만의 대홍수,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기초 정보

국가명 :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수 도 : 이슬라마바드

인 구 : 약 163백만 명

종 교 : 이슬람교 97% (수니파: 77%, 시아파: 20%)

언 어 : 우르두어(공용), 영어, 펀자브어, 신디어, 푸쉬투어



교육제도 :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육 2~4년, 대학원 2년

문맹률 : 54%

평균수명 : 64.13세 독립기념일 : 1947. 8. 14

국경일 :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창설 선포일 3월 23일

시차 : 한국보다 4시간 늦음

파키스탄의 아동보호 현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실종되는 어린이들이 매년 약 3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보고되지 않은 가출, 유괴, 인신매매 등을 포함하면 실종된 어린이들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종되는 어린이들의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무력한 아동보호제도는 상황을 악화시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실종되는 어린이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5~16세이다. 이들 중에는 집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영영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랜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경찰을 대상으로 아동보호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훈련에는 실종 어린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린이 교육을 실시하며 더 많은 CCTV 카메라를 보급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파키스탄에서 플랜이 하는 일

이슬라마바드

- ▶ 쓰레기장 설치, 다리 건설 등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 ▶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독서 토론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문화센터 건립
- ▶ 어린이보육개발센터를 통한 310명의 졸업생 배출 (현재 650명 재학 중)

베하리

- ▶ 44개 유아보육개발센터와 30개의 비정규 교육센터 건립
- ▶ 출생 등록을 위한 기초 교육과 캠페인 활동
- ▶ 눈 건강 프로그램을 비롯한 건강 프로그램 실시
- ▶ 아동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7,900여 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음



차크왈

- ▶ 눈 건강 교육 프로그램 시행 및 홍역 예방 교육과 치료
- ▶ 10개의 초·중등 비정규교육시설과 여성들을 위한 18개의 성인 읽기, 쓰기 시설 설립
- ▶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및 교육

다음 2010년 겨울 소식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우리들의 특별했던 8월

베트남 롯데스쿨 친구들의 서울나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이라는 낯선 땅을 밟은 여섯 명의 베트남 친구들이 조금은 긴장되고 피곤한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플랜코리아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플랜코리아를 통해 베트남 교육 사업을 지원해온 롯데백화점의 초청으로 지난 8월 서울을 찾은 롯데스쿨의 재학생들입니다. 또한 롯데백화점의 후원으로 건립된 베트남 제1호 롯데스쿨이 세워진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외국 땅을 밟게 된 주인공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동자로 조심스럽게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여섯 친구들이 지금도 눈 앞에 선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베트남 중부 꽝아이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배움에 목말라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와 기숙사가 갖춰진 제1호 롯데스쿨을 세웠습니다. 걸어서 학교를 오고 가는 데만 3~4시간을 보내야 했던 남학생 반고이(Van Goi)는 매일 먼 길을 걸어 다닐 필요도, 우기가 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활짝 웃어 보입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나누고 싶었던 마음에 조금 바쁘게 움직였던 일정 속에서도 눈만 마주치면 가장 밝은 표정으로 환하게 웃어주던 여섯 명의 친구들 모두 사실은 롯데백화점과 플랜의 후원이 아니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한 학생들로 선발되어 한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는 것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롯데백화점에서 베트남의 또 다른 지역 박장주에 제2호 롯데스쿨을 건립하고 있는 소식은 더 많은 친구들의 꿈을 키우고 뽀여나가게 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마련한 4박5일 동안 인사동과 롯데월드, 남산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또 플랜코리아의 청소년 봉사단 학생들과도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여의도 플로팅 스테이지에서 열린 롯데스쿨 기금 마련 콘서트에 참석해 한국의 인기가수들을 직접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짧은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부디 이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행복한 기억으로만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함께 보낸 날들은 많은 사진으로 남아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기억으로 모두의 마음 속에 간직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흐른 뒤, 2010년 8월의 기억을 되짚어보며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후원 ☆*동☆연말연시카드 보내기

다가올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후원자님의 사진이 담긴 포토카드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담아 후원아동에게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연말연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 1) 신청대상 : 플랜코리아 아동결연 후원자
- 2) 신청기간 : 2010년 9월 20일 ~ 11월 17일 (오후 6시 마감)
- 3) 신청방법 : 전화 02-790-5436, e-mail letter@plankorea.or.kr
Twitter http://twitter.com/plankorea, Facebook http://www.facebook.com/plankorea

① 선물패키지 4종 중 1가지 선택

(아동 1명당 1가지만 선택 가능/카드는 임의 발송으로 선택 불가)

패키지1 : 카드 + 종이퍼즐 2세트 (9조각, 16조각) - 10,000원

패키지2 : 카드 + 스티커북 1권 - 12,000원

패키지3 : 카드 + 포켓지도 10개 - 12,000원

패키지4 : 카드와 워드패드 지도 30매 - 12,000원

* 위 카드 및 선물비는 운송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②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후 후원자님 혹은 가족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 완료

후원자번호	후원자이름	후원아동번호	후원아동이름	후원아동국가
후원자연락처	후원자e-mail주소	선물패키지 번호	후원금입금예상날짜	비고

③ 선물패키지 선택에 따른 카드 및 선물비를 직접이체로 납부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00-152913,

예금주 : 재단법인플랜한국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플랜코리아 www.plankorea.or.kr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letter@plankorea.or.kr 혹은 전화 02-790-543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님~

작은 실천으로 더 큰 사랑을 나눠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

기부금 영수증을 홈페이지에서 출력한다!

우편비를 절약해 어린이들에게 더 큰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작은 실천 둘.

납부방법을 지로에서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변경한다!

연간 약 7,500원을 절약해 어린이들에게 더 큰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 납부방법변경 및 홈페이지 ID 등록 문의 ☎ 02-790-5436 / e-mail: kno@plankorea.or.kr

소중한 후원금이
아동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애주세요!!

플랜코리아 소식

플랜코리아, 덕성여대 시각디자인과 학생들과 서울디자인한마당 참여

9월17일부터 10월7일까지 열린 종합디자인 축제, 서울디자인한마당에서 덕성여자대학교와 플랜코리아가 함께 전시 공간을 운영했다.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된 텀블러와 티셔츠가 10월 중순 오픈 예정인 플랜코리아의 온라인 매장의 판매에 앞서 전시 및 판매가 되었다. 이번 전시의 판매물품 수익금은 플랜코리아에 기부될 예정이다.



베란다 프로젝트 이상순, 사진전 수익금 기부

플랜코리아를 통해 카메라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는 베란다 프로젝트의 이상순이 지난 10년간 로모 LC-A로 찍은 사진들을 단독으로 전시한 사진전의 수익금을 플랜코리아에 기부했다. 유학중인 네덜란드와 한국 등지에서 로모로 담은 일상의 스냅 사진들을 소개하고자 전시회를 기획하고, 지난 7월 9일부터 한 달간 홍대 로모그래프숍에서 진행했다. 전시회에서 인화된 사진들을 판매한 수익금의 전액이 플랜코리아에 기부되었고, 네 팔 빈곤 지역의 가정과 어린이들에게 염소를 보내주는 THE 좋은선물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진 로모그래피코리아 제공



스타도네이션 프로젝트, 백성현의 희망 티셔츠 바자회 진행

빈곤국 어린이들의 새로운 꿈을 만들어 나갈 릴레이 드림 프로젝트, 채널동아의 '스타 도네이션 프로젝트'로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티셔츠 디자이너의 직업을 체험한 배우 백성현이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를 판매하는 바자회가 지난 7월 열렸다. 아름다운 보라카이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티셔츠 100세트를 한정 판매하여 행사를 통한 수익금의 일부가 플랜코리아에 전달되었다. 백성현의 티셔츠 디자이너 도전기는 채널동아를 통해 방송되었다.

사진 채널동아 제공



플랜코리아 두 번째 도보여행, 강원도 고성에서 진행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결성된 플랜코리아의 중·고등학생 봉사단이 지난해 강화도에 이어 두 번째 발걸음을 지난 7월 강원도 고성에서 가졌다. 빈곤지역의 어린이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먼저 알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 국토 걷기를 목표로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고성에서 진행되었다. 총 80km를 걸어 모금된 기금은 캄보디아의 부족한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우물건설에 사용되었다.



스마일게이트, 영유아개발센터 건립 협약

온라인게임 개발 업체 스마일게이트는 베트남 광 빈 주에 영유아개발센터(ECCD)를 건립하기로 8월 플랜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했다. 마을의 3분의 1 이상의 가구가 절대빈곤에 시달리며 정부로부터의 혜택에서도 소외된 이 지역에 세워질 ECCD센터는 인근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환경과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에 착공식이 진행되었으며 2011년 7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Because I am a Girl 명동 길거리 캠페인 진행

차별과 폭력을 당하는 개발도상국의 여아를 돕기 위한 플랜의 캠페인 Because I am a Girl의 길거리 캠페인이 플랜코리아의 학생 봉사단에 의해 진행되었다. 특히 명동에서 진행된 첫 거리 캠페인은 태국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여아들이 당하는 인신매매와 성폭력의 고통을 알리고 이들을 위한 직업학교를 세우기 위한 활동을 홍보하며 일반인들의 후원참여를 호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Because I am a Girl 거리캠페인은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매달 진행될 예정이다.



플랜 지구촌 소식

파키스탄, 80년만의 최악의 홍수 피해

7월 말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우로 인해 파키스탄은 80년만의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고 있다. 북서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1,7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실종자를 비롯한 피해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옥이 유실되고 가축과 농작물들의 손실 등으로 지역주민들은 살던 마을을 떠나 홍수 피해가 적은 지역으로 이주해 임시대피소에 거주하고 있다. 비는 잦아들고 있지만 물에 잠긴 피해 지역의 재건을 위해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플랜은 긴급구호를 시작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식량과, 텐트, 긴급구호키트 등을 배포해오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어린이와 여성의 보호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수인성 질병의 확산과 장기적인 식량 확보의 어려움, 또한 늘어나는 이재민들을 수용할 임시대피소의 부족 등의 문제는 여전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목소리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만연화된 문제이다. 가나에서 열린 아프리카와 각국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청소년폭력방지포럼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며 유엔과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냈다. 아프리카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학대와 폭력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선진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방지를 위한 활동을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배우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무엇보다 자신들의 고통을 알리고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에서의 폭력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면서도 그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학대를 매일 견뎌내고 있다. 플랜은 빈곤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겪는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 "Learn Without Fear"를 진행하고 있다.



카메룬 북부 콜레라 감염 비상

우기 기간 동안 주민들의 지역 이동으로 인한 콜레라균의 확산은 카메룬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망자 수만 400여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콜레라 감염은 최북단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며 현재까지 1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조사되었다. 플랜을 통해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콜레라 발생 감소를 위한 위생관련 교육을 시행하며, 예방 및 치료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보건위생에 대한 부족한 인식 때문에 더 쉽게 확산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깨끗한 식수와 적합한 위생시설 이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지역사회와 학교에 그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구촌 기후변화 위협

플랜인터내셔널의 후원으로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기후활동가 마가렛 위웨링케(Margaret Wewerinke)는 지구촌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될 것이고,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경고했다. 현재 우간다와 같은 빈곤국들은 예산의 많은 부분을 기후변화의 피해를 알리는데 쓰고 있으며, 이는 교육이나 보건위생과 같은 우선시되어야 하는 사업 예산을 다른 곳에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발생시키지 않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가를 왜 그들이 떠맡아야 하는지에 대해 선진국들에게 일침을 놓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점점 고갈되어 가는 식수문제는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매일 걸어서 물을 길어오는 노동을 강요할 것이고, 이러한 성차별과 인권침해의 시급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플랜과 함께하는 분들

/ 일시후원금, 긴급재해 후원금, 모금함, THE 좋은선물, 특별후원금

일시후원금				모금함	
노채봉	30,000	이명재	1,000,000	파키스탄 성금	
장대옥	30,000	최윤희	300,000	송은식	20,000
정현윤	10,000	임정연	30,000	배정연	30,000
김한아	30,000	임진옥	30,000	김덕재	53,600
강학순	450,000	임용주	10,000	박양희	65,000
조수연 박선우	200,000	박영희	100,000	송재중	100,000
(주)동진건설(신탁영)	200,000	김선구	30,000	박정혜	30,000
배성은	50,000	채수진	279,000	박아영	5,000
김효중	200,000	김명희	10,000	최웅진(보승악국)	9,000
엄소현	50,000	이은재	10,000	조석현	10,000
허지원	10,000	권명선	20,000	노영찬	30,000
고효상	200,000	정아임	10,000	박천서	5,000,000
양연순	50,000	이상권	100,000	아이티 지진피해 성금	
김선옥 외	8,000	최치운	80,000	차재진	30,000
박영진	60,000	(주)라코	100,000	동일레나운(주)	1,002,000
서정아	20,000	창원디자인스타미술학원	19,800	신금숙	300,000
박정서	30,000	박영민	100,000	리베라 호텔	
				목포시청(다나엘리)	370,000
				오킴스브로이하우스	46,040
				창원디자인스타미술학원	19,800
				자바시티	
				리베라 호텔 - 프론트	71,480
				리베라 호텔 - 사우나	51,120
				플랜 클럽	
				청담 GE점	96,510
				분당 서현점	86,070
				경희대학교 축제	57,410
				이화여대 축제	61,770

THE 좋은선물

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2010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0년 THE좋은선물과 함께 하신 분들		현재까지 모금액 (10.9.30 기준)	28,320,243원
배준호, 정다정, 안정형, 김일수, 지 은, 엄소현, 이상순, 유정희, 이재경, 권호정, 신금숙, 이우에스티(주), 최강석, 이정진, 허지윤, 김혜성		네팔 염소 보내기	16,535,730원
[문의] ☎ 02-790-5436 / E-MAIL : kno@plankorea.or.kr		수단 양 보내기	4,225,413원
		캄보디아 어린이 도서관 짓기	7,559,100원



받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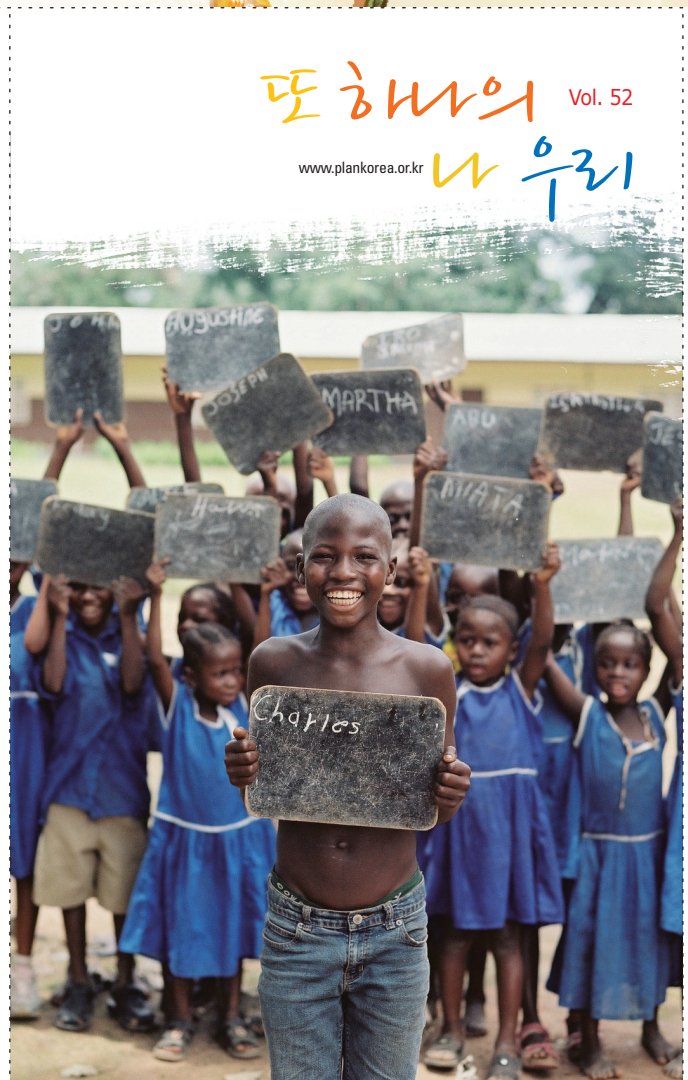
(재) 플랜한국위원회
(舊 養親會)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8-4
청우빌딩 2층

135-870

서
평
편
아

보내는 사람



또 하나의 Vol. 52
www.plankorea.or.kr 나 우리

국
립
문
화
재
단

2010년 신규 후원자 번호순으로 게재하였습니다. 후원에 동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 후원금

전연안	대구시	충구	이재빈	서울시	성동구	화나현	경기도	평택시	심현경	서울시	강동구	정현욱	경남	진주시
전해정	서울시	송파구	박찬홍	서울시	강동구	김미선	경남	통영시	박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이문영	인천시	남동구
이정환	광주시	북구	김민석	대구시	남구	이대훈	경남	창원시	신범호	서울시	강서구	정현숙	경북	구미시
김상훈	서울시	송파구	이현서	충남	연기군	심광수	서울시	노원구	전문호	경기도	안양시	심보영	울산시	남구
강영홍	서울시	노원구	최유빈	부산시	북구	한지현	경기도	고양시	조은애	인천시	계양구	최인솔	경기도	용인시
문성숙	경기도	성남시	손솔아	경기도	화성시	윤혜정	경기도	파주시	홍은선	광주시	북구	김은혜	경남	남해군
허은진	경기도	과천시	(주)아유디자인	서울시	성동구	김진욱	충북	충주시	위영태	광주시	북구			
김단비	경기도	안양시	왕여경	서울시	용산구	윤석현	경기도	남양주시	김은성	대구시	북구			
장선미	부산시	남구	이준서	충남	연기군	권아영	서울시	강서구	이기원	서울시	송파구			
박강미	부산시	남구	김양희	광주시	북구	이승진	서울시	성북구	김세인	광주시	광산구			
이희원	경기도	용인시	차지현	서울시	도봉구	이지영	인천시	부평구	이재연	경기도	용인시			
김옥순	경기도	용인시	김중국	울산시	중구	최보영	서울시	종량구	곽은주	서울시	금천구			
조창원	서울시	은평구	성지옥	경기도	수원시	김중남	울산시	남구	황석정	서울시	용산구			
정희범	부산시	서구	신정희	서울시	광진구	박종현	서울시	강남구	김서진	경기도	안양시			
송민정	경기도	군포시	김지은	경기도	안산시	김재식	경북	구미시	김진영	인천시	서구			



신규 어린이 결연 후원자

이수형	서울시	석화철	강원도	김하늘	인천시	김은영	충남	강초희	서울시	김진숙	전라도	유송애	서울시
문준성	서울시	이문재	경남	박효정	서울시	정은진	서울시	최진숙	경기도	서동휘	서울시	신애경	경기도
김민철	경기도	김민진	경남	박성은	경기도	최영근	서울시	신민지	경남	한예원	경기도	김현규	서울시
김민주	전라도	한정림	경기도	이지민	대전시	이종욱	서울시	이지희	서울시	김민경	대구시	안희원	서울시
현인식	인천시	유해미	경남	이혜진	서울시	김경식	경남	조인식	경남	김은미	경기도	정상필	서울시
이다희	경기도	안진경	경기도	신슬기	서울시	김윤숙	경기도	한윤아	경기도	서성원	경기도	김희란	인천시
신상영	서울시	김민영	서울시	김영란	경기도	황인순	경기도	박지은	부산시	노혜진	경기도	손지은	대구시
최지영	경기도	김영선	경남	김영만	경기도	박지연	서울시	김유진	광주시	하정윤	경남	장승기	경기도
이세민	경기도	오소혜	경남	이명숙	경기도	정함우	대전시	김진영	서울시	김태권	서울시	김효정	전북
김홍경	서울시	최미정	경기도	최은혜	서울시	이다미	충북	방정화	인천시	김동명	전남	권신영	서울시
김효정	경남	최창렬	경기도	임지혜	경기도	김경희	서울시	오지선	서울시	김현진	전남	오성영	경남
김주영	대구시	이지은	대구시	전성훈	부산시	박정	충남	김현구	경남	정현진	경남	김경희	서울시
최종진	경기도	김숙경	부산시	이정민	서울시	권소연	경기도	김지훈	서울시	양광조	경기도	안지현	서울시
이상훈	경기도	김효선	서울시	김효진	대구시	김소연	대구시	조원립	서울시	최은영	서울시	오아름	대구시
전수현	부산시	이복숙	경남	김효진	서울시	양승기	경기도	임상현	서울시	박선진	경남	김정기	강원도
박남숙	서울시	이승원	경기도	황서현	경기도	강승기	제주도	안상진	경기도	정현정	부천시	정해욱	광주시

주위에 플랜의 후원자가 되실 분을 소개해 주세요.
플랜에서 대신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이름 :

주소 혹은 연락처 :

이름 :

주소 혹은 연락처 :

추천인 :

플랜에 바라는 글 :

후원신청서

이름 : (한글)

(영문)

주소 :

□남 □여 □단체 □커를

전화번호 :

E-mail :

플랜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아동 결연 후원 (명)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역의 어린이와 결연이 되어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한 어린이와 결연 시 후원금은 매달 3만원입니다. 한 어린이를 커를 또는 단체가 함께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 특별사업지원 후원 (만원)

플랜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아래와 같은 특별 사업을 지원하시는 후원방법입니다. 매달 1만원 이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거리의 아이들 지원 • 에이즈 교아 지원 • 양 지원

□ 프로젝트사업지원 (최소 미화 5,000달러 이상)

플랜이 48개국에서 실시하는 교육, 보건위생, 환경개선, 생계지원, 문화교류 등 5대 사업 분야의 단위 사업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 학교 건축 사업 • 식수 개선 사업 • 식량 지원 사업 • 기생충 예방 사업

납부방법

□ CMS에 의한 자동이체
금융결제원에 의해 자동으로 이체되는 방법으로, 전화를 통해 통장의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카드결제

카드결제 가능한 카드는 삼성카드, 현대카드, BC카드, 외환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씨티카드, 롯데카드, NH카드, 하나SK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은 전화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이체와 카드결제를 신청하신 분은 추후에 연락을 드려 필요한 사항을 접수 받습니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이용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 전화 02) 790-5436 E-mail : kno@plankorea.or.kr

*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지정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 재정경제원공고 제1966-12호)

2010년 신규 후원자 번호순으로 게재하였습니다. 후원에 동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규 어린이 결연 후원자													
하이호	경남	고기성	대전시	노충완	경기도	이영희	서울시	김윤희	경남	유재현	대구시	신상원	부산시
최정호	경남	홍경준	부산시	황하영	강원도	이주연, 이주이	경기도	김형철	인천시	임지민	서울시	강인형	제주도
문정후	대전시	이소영	서울시	김해경	경남	이지선	서울시	오소라	광주시	조재영	서울시	정세림	서울시
강경자	서울시	박해림	강원도	송호주	경기도	서이원	경기도	김종진	경남	이민호	부산시	황안	서울시
고나은	전북	김광용	부산시	신은영	인천시	심수형	전북	신선애	전북	김지호	서울시	손오건	서울시
전다솔	부산시	임정미	경남	정미경	서울시	서 현	부산시	김미경	대구시	김현아	서울시	박병건	서울시
인찬시	인천시	김소남	경기도	임보람	경기도	김현지	제주도	최소라	경남	이은비	경기도	전도연	서울시
김재우	경남	한윤석	경기도	강진희	전북	조하나	경남	박승태	서울시	이수지	경남	박미영	서울시
강민서	서울시	김해린	경남	정은화	대전시	안다희	대구시	이선희	충남	진명선	경기도	한두리	경기도
김나영	광주시	하민지	경기도	엄현호	경기도	신선임	인천시	김성훈	경기도	김지혜	부산시	조현정	울산시
정민영	대전시	정재현	서울시	오민수	서울시	한송이	충남	최정화	경기도	김수경	경남	최진희	경기도
나연진	서울시	김규현	서울시	유연정	서울시	고인정	서울시	정금소	경기도	진석서	서울시	정은주	경남
김은정	서울시	이주영	강원도	송은지	대전시	이정현	서울시	한태영	경기도	김민서	서울시	김예린	서울시
정윤정, 이승재	서울시	김유나	경기도	권사리	서울시	박소은	서울시	홍진희	인천시	엄성준	서울시	김현주	대구시
박현식	서울시	진동수	충남	노은종	울산시	박민희	경기도	오수정	경남	황경진	서울시	박가영	서울시
조혜영	부산시	이미영	경기도	이화진	서울시	김경석	부산시	박유석	부산시	배지현	인천시	김한솔	서울시
홍신영	경기도	전혜은	경기도	김유한	경기도	김지훈	충북	정하나	부산시	김수지	경기도	권민지	대구시
조혜남	서울시	이정주	경기도	김미경	경기도	문민정	부산시	이지은	서울시	김성국	대구시	신영주	서울시
유인영	경기도	윤현정	제주도	김지수	충북	김다인	부산시	정호준	경남	장미숙	대전시	장광희	서울시
이상희	충북	장기성	경기도	김소정	서울시	하예지	경남	박영숙	서울시	김주연	경기도	김영섭	경남
권희정	경남	김일순	인천시	황경준	강원도	이지원	경남	황준석	서울시	유연우	서울시	남승우	충남
권 석	경남	김소경	전북	김성도	충북	유선하	서울시	이미숙	충남	김효정	서울시	정승현	경기도
최수정	경기도	조은경	전북	김성도	충북	유선하	서울시	이주연	충남	김정훈	서울시	이종철	전북
김영민	전북	주인수	서울시	이진희	울산시	정영서	서울시	정영수	부산시	김정훈	서울시	이종철	전북
정지연	전북	유윤용	부산시	윤일상	서울시	김정현	경기도	한아름	서울시	김민애	경기도	정은진	전북
주호정	서울시	윤광훈	서울시	정영관	서울시	김정현	전라도	이현영	대전시	박상기	경남	전광식	서울시
김나현	서울시	김일수	서울시	정영관	서울시	정영관	서울시	박정현	경기도	유현아	경기도	이아름	경기도
이은중	인천시	성남의	서울시	함영관	서울시	염수미	경기도	박시영	서울시	정다은	대전시	이아름	경기도
김현희	경기도	서주현	광주시	김수아	경주시	강은혜	경기도	최정현	경남	최정현	인천시	정일진	경기도
김현희	경원도	김용태	경주시	안현숙	경기도	김유민	경기도	김현식	서울시	황지윤	서울시	김정은	대전시
양진아	부산시	조은정	경남	양혜미	충남	김종태	서울시	정재현	서울시	김주리나	서울시	신민정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김다영	충북	조진선	서울시	김승태	울산시	전현으로기적들만드는사람들	경남	노신옥	서울시	황보현	경기도
김신희	경기도	신인재	서울시	오재식	경기도	박창환	경기도	김미진	경기도	김은지	충남	전혜남	서울시
정현우	서울시	이상영	경기도	최현리	서울시	정성훈	서울시	이세나	경기도	도 우	충남	이보람	서울시
김선국	경남	오재남	경남	유혜나	경남	우혜영	서울시	장영림	대전시	이수현	경남	김서희	서울시
오현규	서울시	조정자	서울시	김미정	경남	노국현	부산시	남윤진	서울시	정덕수	경기도	정영수	서울시
이외소	경남	손지현	서울시	최종수	서울시	김미자	서울시	윤정원	서울시	이현희	경기도	윤일상	대구시
김윤희	경기도	노현희	대전시	조유리	경기도	김미주	서울시	이희은	경기도	권재현	강원도	김 순	인천시
이현주	대전시	정우호	충남	최민아	충북	홍예슬	경기도	김미은	경기도	김선희	서울시	박신희	경기도
백지은	경기도	문형근	경기도	남주현	서울시	김소연	부산시	전지영	서울시	김재현	서울시	김수진	서울시
박희연	서울시	김한정	서울시	권광호	서울시	정서우	서울시	이진희	서울시	신화경	경기도	김은희	서울시
김계현	경기도	김지혜	경기도	박정훈	경기도	이규현	경기도	김정성	부산시	이소희	경기도	강하윤	강원도
김범수	서울시	박정은	경기도	원유정, 원우정	부산시	김유미	부산시	백다솔	부산시	최경현	서울시	김수진	경기도
김미수	서울시	최수영	부산시	최수호, 우수민	경남	홍현준	서울시	양주희	전라도	조민희	인천시	주찬미	경기도
김용태	서울시	김지연	서울시	박복소	전북	김보빛나	경기도	윤영민	경기도	최민희	인천시	윤익준	대구시
최은호	경기도	이성우	서울시	박복소	대전시	정다혜	대전시	이영순, 신유라	대구시	김경진	경기도	임재윤	강원도
김재호	서울시	유혜정	대전시	이재희	경기도	박현정	경남	오지숙	충북	이선영	서울시	박신영	서울시
김성경	서울시	강상길	충남	최창민	인천시	고은지	경기도	최은희	전라도	이가연	경기도	송유진	서울시
정민	경남	정영숙	경기도	남영호	전북	김재영	대구시	김용정	경기도	박재경	경기도	김희경	경기도
진민규	서울시	이동훈	경기도	조성국	서울시	서승현	서울시	남용현	경기도	이경민	서울시	이광훈	경기도
이동규	서울시	정용철	경기도	김해진	서울시	송수만	경기도	김영주	서울시	오민석	경기도	윤지우	서울시
최미순	경기도	김영재	경기도	정영숙	경남	이호진	부산시	강해준	경남	윤인아	전라도	윤지우	서울시
박재영	대구시	이정식	경기도	정성훈	서울시	한수지	충남	정승민	충북	김승민	서울시	김은주	경기도
황은경	충북	김윤기	경기도	김보경	경남	전지원	대구시	김수정	대전시	권순호	인천시	가민하	서울시
김미현	제주도	남윤하	서울시	한지민	경기도	이은하	충남	김지연	경기도	이현희	대전시	이정기	대전시
최다솔	경기도	안승환	경기도	규구만	경기도	김경숙	경기도	이재희	경기도	최정현	부산시	김기현	부산시
최민정	전북	조형식	경기도	경기가네기연구소(주)	경기도	김가민	서울시	심해정	전라도	박현주	대전시	주명하	부산시
김다솔	경남	곽재훈	경기도	김지영	경기도	김미하	서울시	이성민	경남	권다현	경기도	조민지	부산시
김다솔	경남	김지현	경기도	고연정	서울시	고연정	부산시	윤연정	대구시	윤연정	대구시	양수진	대구시
김민서	경기도	김보영	경기도	홍성순	서울시	박수빈	서울시	김은지	서울시	안지영	전북	김정성	인천시
김민서	경기도	한동욱	경기도	이현수	경기도	김진경	서울시	유진아	전북	최재현	서울시	송성훈	서울시
오세연	대전시	김지현	서울시	정문정	경기도	김은진	대전시	김영백	서울시	송진경	서울시	이지연	서울시
국복분	대전시	오은주	강원도	이수이	충북	이수이	대전시	김희택	충남	한승화	부산시	김유덕	인천시
장선정	경기도	민경진	인천시	김진선	부산시	송인영	충남	함정영	강원도	이승현	강원도	김진욱	강원도
이은영	경기도	조소연	인천시	은연정	서울시	은연정	대구시	정재민	대구시	박진주	대전시	한은	인천시
양명숙	서울시	배규리	경기도	주호선	서울시	변호준	경기도	노승경	서울시	심신민	경남	김대현	서울시
배성정	인천시	신현옥	광주시	이혜영	서울시	변지현	인천시	조아름	서울시	이은정	경기도	김미진	경기도
이유진	울산시	강민정	대전시	이보람	부산시	최재현	부산시	김경철	부산시	김민영	대구시	김호진	서울시
이영우	경남	배성은	경남	박지현	서울시	김지현	서울시	오정식	경기도	김민하	서울시	김소현	충남
김정성	서울시	김보경	경남	김현희	경기도	안지희	경기도	김가현	대구시	김비라	경기도	이다민	경기도
최지혜	서울시	이동현	대구시	김승현	부산시	김아름	서울시	이동호	서울시	홍성은	서울시	고은빛	서울시
유영목	서울시	김경준	인천시	은 섀	서울시	임미라	서울시	김진우	서울시	이다을	서울시	장혜경	충북
정현진	경남	정현준	서울시	이태현	경기도	이태현	경기도	남은아	경기도	이희림	경기도	김재윤	경남
최다미	서울시	김은정	서울시	임남환	경기도	노귀희	서울시	고일근	부산시	경남	전북	김재국	전북
이수진	서울시	오재진	서울시	양선희	서울시	정희정	서울시	하주영	경기도	배은영	서울시	하종철	부산시
조호성	경기도	김지현	경남	박준서	강원도	이미소	강원도	김지은	경기도	김하나	경기도	이윤정	서울시
이재현	전북	박상현, 안은빈	서울시	박하은	경기도	이민우	대전시	박호진	광주시	송지현	경기도	나희주	인천시
김지현	경기도	홍수정	경기도	임지식	서울시	김미성	서울시	이소숙	경남	남택수	경남	김찬수	충남
유재현	서울시	이대경	서울시	반가영	서울시	김병성	충북	최형식	경기도	오미라	경남	임은정	부산시
정영심	경기도	김진희	서울시	박신아	서울시	박수현	인천시	박재영	경남	이윤성	경남	김우람	경기도
김현숙	제주도	이현고	서울시	윤현도	서울시	안지훈	서울시	안지훈	경기도	이윤성	서울시	김미연	경기도
명아름, 오길원	대구시	김보미	경기도	방지연	서울시	윤해진	경남	김지연	경남	이정선	인천시	박희수	경기도
오길원, 명아름	대구시	김진선	서울시	이조미	서울시	김민지	서울시	고옥	제주도	박병민	대전시	문영하	전북
김현정, 김상하	부산시	고은라	서울시	소경아	전북	이태민	광주시	안정주	서울시	한경아	서울시	최바다	경기도
김경희	경기도	박철환	대전시	신종훈	충북	신준우	서울시	서경숙	경기도	박승수	서울시	허남주	서울시
김영희	경기도	이민희	경남	최유정	서울시	김태용	서울시	이보경	경기도	정지현	충남	김아름	서울시
이은비	경남	이상아	경남	고일희	충남	김경희	부산시	이기정, 윤현주	경기도	이진영	경기도	목서우	서울시
장유현	경기도	박예은	서울시	차수진	서울시	이종배	서울시	김성용	경남	오홍성	경남	임영미	경기도
최재진	경기도	조진희, 박문원	서울시	이기산	충남	장영미	경기도	권민영	서울시	김혜선	서울시	정호영	서울시
김은진	경기도	조서영	서울시	고원준	부산시	양준우	서울시	김종수	경남	배두현	경기도	박경아	경기도
이경희	서울시	박종국	경기도	이보람	충북	양시문	서울시	정성현	대구시	정성현	서울시	홍소정	경남
백소현	서울시	김은하	경기도	조보정	서울시	오지현	경기도	이현진	경남	박노아	대전시	이영란	경남
김혜원	경기도	이상기	서울시	최보람	서울시	오종석	서울시	고병목	서울시	천현으로기적들만드는사람들	경남		
서현호	경기도	김유연	서울시	박민정	부산시	강준우	부산시	이효정	대전시	권미희	인천시		

독도 로드뷰

독도 구석구석을 찍은 지도, 일본에도 있나요?

보이는 그대로의 지도, Daum 로드뷰

이번엔 독도에 다녀왔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지요. 한국 땅이니까.

당신이 어디 계시든, 로드뷰를 켜면

독도 이곳 저곳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구석구석 보이는 그대로, Daum 로드뷰

로드뷰가 보이는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전국 구석구석을 로드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